

문화광장



김정호
경희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

올 3월에 재일동포의 삶을 다룬 '용길 이네 고향집' (2018)이 개봉했다. 이 영화의 연출자 정영신이 2008년 처음 쓰고 연출한 연극 '야기니구 드래곤'을 영화화한 것이다. 이 영화는 1969년, 오사카 공항 근처 일본 국유지의 판자촌을 배경으로 불고기 고향집을 운영하는 가족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간다. 김용길은 태평양전쟁에 한쪽 팔을 잃고 해방 후 딸과 자신은 일본에 있고 아내와 다른 가족을 먼저 제주도로 보냈으나, 제주 4·3으로 가족이 모두 학살돼 일본에 그대로 남는다. 그의 현재 아내 고영순도 한국 전쟁에서 남편을

영화 속 재일 제주인: 제주도 디아스포라

잃고 딸을 데리고 일본에 와서 김용길과 가족을 이룬다. 이들은 일본이 1970년에 개최하려는 오사카 만국박람회를 앞두고 철거의 위기에 몰린다. '재일 교포를 다룬 영화로는 '달은 어디에 떠 있는가'(1993), 'go'(2001), '피와 땀'(2004), '박치기'(2004), '박치기 love & peace'(2007) 등이 있는데, 이들 중 'go'를 제외한 4편의 영화가 제주도에 뿌리를 둔 사람들을 다루고 있다. '달은 어디에 떠 있는가'와 '피와 땀'의 원작 소설은 쓴 양석일(양정웅)은 부모가 제주도 출신으로 1936년 오사카 이카이노에서 태어나, 택시 운전사 등 여러 직업을 경험하다 40세에 작가로서 데뷔하게 된다. '달은 어디에 떠 있는가'의 택시 운전사 강충남의 어머니는 제주 출신으로 홀로 가라오게 바를 경영한다. 필리핀 출신 웨이트리스들에게 자신도 무일푼으로 일본에 와서 이렇게 성공했다며 너희들과 자신이 다를 바 없었던 어머

니는 북송된 강충남의 형들에게 보낼 물건과 돈을 챙기면서 강충남의 연애 상대를 알고 화를 낸다. 그런 어머니에게 강충남은 일본 여자, 제주도 여자, 필리핀 여자, 민단 여자도 아니면 누굴 사귀어야 하느냐고 묻는다. '피와 땀'는 주인공 김준평의 파시스트적 폭력, 여성 학대에 편하게 보기가 쉽지 않다. 제주에서 오사카까지 정기 배편이 운행되던 1923년에 오사카로 간 10대의 김준평이 1984년 북한에서 일생을 마칠 때까지의 이야기를 그의 아들의 시각을 통해 보여준다. 김준평의 한국인 아내도 제주에서 오사카 공장에 일하러 온 직공이었으나 유부남 일본인 관리자의 아기를 임신해 공장에서 쫓겨난 뒤에 김준평과 결혼해 영화의 서술자 아들을 뒀다. 잔칫날 돼지를 잡는 적나라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일본 작가의 '소년 M의 임진강'을 원작으로 둔 '박치기'에선 1968년 교토를 배경으로 일본 남자 고등학생과 조선학

교 여학생의 사랑과, 외국인으로서 일본에서 축구의 꿈을 펼쳐나갈 수 없어 북한으로 가는 북송선을 타려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교토의 강을 두고 일본 학생과 조선학교 학생의 싸움이 벌어지는 중에 남녀 고등학생을 이어주는 노래는 '임진강'이다. '박치기'에선 주인공의 아버지가 일본군에 징용됐다가 탈출한 제주 사람이라고 나오며, 삼랑을 동원해 굶을 하는 모습도 보인다. 1968년 출생의 코리안 제퍼니즈 작가 가네시로 가즈키 원작의 '고'에서 주인공의 아버지는 남한도 북한도 아닌 조선 국적 즉 이제는 없어진 나라의 국적이니 결과적으로 무국적이었다가 아들을 위해 한국적을 선택한다. 아들은 사랑하는 여자와 사랑을 나누기 전에 자신이 자이니치 한국인임을 고백해야만 했다. '박치기' 시리즈와 '고'는 청소년 영화라기보다 '친구', '말죽거리 잔혹사', '국제시장'을 합쳐놓은 듯한 영화들이다.

사설

진단검사 후 입도, 방역에 찬물 문제다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다소 둔화했습니다. 지난 28일 7명으로 떨어졌던 확진자가 다시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지난 24일부터 5일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한 초강수 특별방역대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때문에 아직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이르다고 봅니다. 제주지역 곳곳에서 새로운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27일 하루동안 1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39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따들어 지난 17일 27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역 감염이 견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24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9일째 20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도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특히 교회·성당에서 불거진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곳곳으로 퍼지

고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일상 곳곳에서 새로운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선 중·고등학교 학생을 비롯해 학원 강사와 어린이집 종사자가 감염됐습니다. 그런가하면 제주시청 간부공무원도 확진 판정을 받아 공식사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문제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입도해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방역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무작위로 격리를 진행하며 대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 이탈 시 법적 처벌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검체 채취 후 제주에 들어오더라도 속수무책이어서 방역망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보다 세밀한 방역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계획도 못세운 제조업 '심중팔구'

국내 제조업 대부분이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악의 지역경제 침체를 겪은데 이어 새해에도 이어지는 불황 전망에 사업계획을 아예 세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시장상황이 워낙 불투명해 기업들의 코로나19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히 내년 사업계획 수립이 어려운 이유로는 시장 전망 불투명 67.9%, 코로나 등 현안대응 차 사업계획 수립 지연 21.4%, 신규사업 추진여부 검토 지연 7.1% 등이었습니다. '내년 사업계획도 못세운 제조업'이 연말인 여태까지 신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하지 못할 정도라면 지역경제 불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반증입니다. 새해 지역경제의 불투명을 해소하고, 불황의 끝을 매울 특단의 경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고용 창출 효과가 가장 큰 제조업이 무너지면 그나마 기댈 지역경제 체흐름 전망과 관련, '올해와 비슷(37.2%)', '다소 악화(30.8%)', '다소 호전(23.1%)', '매우 악화(9.0%)' 등으로 나와 응답업체의 70% 이상이 경제 악화를 예상했습니다.

더욱이 내년 사업계획 수립이 어려운 이유로는 시장 전망 불투명 67.9%, 코로나 등 현안대응 차 사업계획 수립 지연 21.4%, 신규사업 추진여부 검토 지연 7.1% 등이었습니다. '내년 사업계획도 못세운 제조업'이 연말인 여태까지 신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하지 못할 정도라면 지역경제 불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반증입니다. 새해 지역경제의 불투명을 해소하고, 불황의 끝을 매울 특단의 경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고용 창출 효과가 가장 큰 제조업이 무너지면 그나마 기댈 지역경제 체흐름 전망과 관련, '올해와 비슷(37.2%)', '다소 악화(30.8%)', '다소 호전(23.1%)', '매우 악화(9.0%)' 등으로 나와 응답업체의 70% 이상이 경제 악화를 예상했습니다.

뉴스-in

“근로시간 제약으로 농민들 손해 전가돼”

APC 특별 연장 근로 관심
○...중문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가 주 52시간 특별연장 근로 허가를 받으며 확산 여부에 관심. 고용노동부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이달 중문농협이 요청한 APC근로자 주 64시간 근무 허용에 대해 지난 23일 한시적으로 허용(1월 1일부터 28일까지)해 주기로 결정.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제약으로 감귤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서 그 손해는 농민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다른 농협도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추가 인가 신청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언급. 고대로그자
청소년 선택은 강철남 의원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울)이 한국청소년재단이 주최·주관하는 '제5회 청소년희망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눈길. 현영종기자

강 위원장은 청소년지도사 출신으로 도의원이 되기 이전부터 제주 청소년지도사회 회장 등을 맡으며 도내 청소년들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는 평가. 강 위원장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수상소감을 언급. 이태윤기자
‘월동체소 종합 상황실’ 운영
○...서귀포시가 본격적인 월동체소 출하시기에 맞춰 월동체소 종합 상황실을 설치, 운영에 돌입. 서귀포시는 종합 상황실 운영을 통해 폭설·한파 등 기상요인에 따른 작황 변동성·수급상황을 관리하는 한편, 1월부터 비규격품 단속반을 운영해 월동체소 가격을 지지하고 수급에 안정을 기한다는 구상. 김태업 시장은 최근 성산지역 무세척시설을 방문, 월동체소 생육현장을 점검하며 관계자들과 대책을 논의. 현영종기자

열린마당

유튜브·넷플릭스가 환경을 오염시킨다?



김유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유튜브, 넷플릭스 등의 온라인 동영상 사용량이 증가했다. 그런데 유튜브나 넷플릭스 사용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디지털 탄소발자국을 찍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프랑스의 환경단체 '시프트 프로젝트'는 온라인 동영상 30분 동안 재생하면 1.6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는 차로 6.3km 운전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동일하다. 과연 온라인 동영상 시청이 어떻게 환경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일까?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려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 데이터 센터란 컴퓨터 시스템과 통신장비, 저장장치인 스토리지 등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이들은 24시간 365일 가동되면서

대규모의 전력을 소비하고 엄청난 열을 방출한다. 이 열을 냉각시키기 위해서도 엄청난 전력이 소비되고 있다. 온라인 동영상뿐만 아니라 이메일을 전송하거나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 센터에 연결되고 정보가 전송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이처럼 디지털 기기의 생산과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디지털 탄소 발자국이라고 한다. 코로나로 유튜브, 넷플릭스 사용량이 증가하고 IT기기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탄소발자국은 새로운 환경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개인이 디지털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스트리밍보다는 다운로드 영상을 감상한다. 둘째, 스마트폰의 밝기를 낮춘다. 셋째, 불필요한 이메일들은 삭제한다. 코로나19로 유튜브, 넷플릭스 등의 온라인 동영상 사용량이 증가하고 늘어나는 스팸메일과 메일 속 불필요한 이메일들로 인해 전력 사용량은 늘고 있다.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데이터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

부 고
고창배(前 KT제주본부팀장, 신노형 공인중개사) 어머니 김해림씨 신화(향년 89세)께서 2020년 12월 27일 17시 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12월 30일(수요일)
▶발인일시: 2020년 12월 31일(목요일) 오전 8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4빈소
▶장 지: 양지공원
아 들 고창배 며느리 김정희
(故)장남 김복자
딸 고인미 사 위 박영선
고인미 사 위 박우성
손 자 고서준 손 부 김지혜
고서준 사 위 김지혜
고서준 사 위 김지혜
외 손 박현수 사 위 홍림
박현수 사 위 정성영
박현수 사 위 김성영

부 고
변수철(제주대학교교류본부 행정실장) 아버지 원주봉군 참근(前 현대가구사 대표·향년 79세)께서 서기 2020년 12월 28일 06시 2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12월 29일(화요일)
▶발인일시: 2020년 12월 30일(수요일) 오전 8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3빈소
▶장 지: 양지공원
부 인 김옥자
아 들 변수철 며느리 김미영
홍철 윤미
재철 전수진
윤철 고경희
딸 변은경 사 위 강우남

부 고
문정환(토명초등학교) 어머니 진주 강씨 정선(前 제대병원 간호사, 향년 64세)께서 서기 2020년 12월 27일 13시 05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12월 29일(화요일)
▶발인일시: 2020년 12월 30일(수요일) 오전 8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4빈소
▶장 지: 양지공원
남 편 문남석
아 들 문정환 며느리 고서희
딸 문영주
영채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남양흥씨 병직(향년 102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 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12월 29일
며느리 강순옥
아 들 양성수 강영우
영수 현정심
창수 오숙희
딸 양순정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문제관련분묘 개장 및 동명 시흥지구 제2차 구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영구차 또는 관리인인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인공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다 음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2. 개장 사유: 분묘관리사
3. 개장 후 안치장소 및 불안기간
4. 개장방법
5.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신고 및 문의처
7. 신고지: 대구시 동구 송라로10길 34 송규호 ☎ 010-2502-3096
8.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위 시립묘지 내에 시설이 불분명한 묘가 추가로 발견 시 이 공고로 갈음함.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공고를 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위공고인: 대구시 동구 송라로10길 34 송규호 ☎ 010-2502-3096

재산상속 한정승인 공고
·성 명 : 망 전상진(1941. 11. 3. 생)
·최후주조: 제주시 상성로 11길 16-11층(일도이동)
상기자는 2020년 8월 5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은 2020년 12월 9일 제주지방법원 2020-나단670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니다.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는 자는 정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신고기간: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신고처: 제주시 시장 3길 22, 202호(연동울빌라) (송달장소: 제주시 신성로 10길 15, 대원가스)
3020년 12월 29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전광영, 전은숙, 전은경